

간호학생의 공익신고의도와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the Whistleblowing Intent and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김인순(Kim, In-Soon)* · 최은숙(Choi, Eun-Sook)**

이경열(Lee, Kyoung-Youl)** · 곽명순(Kwak, Myung-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about whistle-blowing intentions and influencing factors of that into nursing students. Data from 266 nursing students were collected october 12-28, 2015.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mainly 3 parts of a 4-point Likert-type scale; whistle-blowing intention (8 items), moral intelligence (7 components, 41 items) and friendship (5 item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1.0. The mean score of whistle-blowing intention was 3.16 (\pm 0.42) and of this items 'guarantee of the identity for whistle-blowing' was the highest score with 3.71. The score of whistle-blowing intentions were correlated with age, number of friend, friendship and moral intelligence. The moral intelligence 'tolerance' were the most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ntions ($r=.464$, $p<.00$). The explained power for whistle-blowing intentions were the tolerance(21.6%) and kindness(2.6%). Implications for nursing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whistle-blowing intent, moral intelligence, friendship, nursing student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공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 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I. 서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와 가족들은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기를 기대하며 또한 이는 환자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의료서비스를 불안전하게 제공할 의도는 없겠지만, 현재의 의료서비스의 안전 수준이 환자들의 기대수준에 미치고 있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이상일, 2013).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문적 성취나 금전적 이익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로 높은 사망률을 개시하지 않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인 수술을 하는 의사(동아일보, 2012. 9.11)와, 일회용 주사기나 일회용 키트 재사용에 의해 C형 간염을 집단 발생케 한 의사(동아일보, 2016. 2.25) 등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 및 의료오류와 관련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안전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김재영·황은애, 2014).

미국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윤리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으며 의료오류 공개와 관련된 비처벌적 보고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의료오류에 대한 통계자료나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의료분쟁으로 나타난 의료사고 건수로만 그 현황을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상일, 2013). 의료오류에 대해 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들은 공개적 논의를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의료오류를 침묵의 문화, 부끄러운 문화 그리고 비난 또는 처벌의 문화로 인식하여 대중이나 환자에게 의료오류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김세영, 2014). 따라서 불법 및 비윤리적 의료행위와 의료오류를 감소시키고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조직 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요청된다.

의료관련 단체의 윤리강령 중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14항(대상자 보호)과 한국 간호사 윤리지침 제24조(비윤리적 행위거부)와 제25조(비윤리적 행위보고) 1항 및 2항에서는 간호사들에게 공익신고의 의무와 함께 신고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 2013, 대한간호협회 2014). 그러나 이러한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이 있다하더라도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도중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의해 간호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조직과 동료들 보호하기 위하여 침묵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간호대상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에 공익신고를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란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불법이나 비윤리적 행위 그리고 의료오류가 발생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고 있는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이 그들이 일하게 될 실무현장에서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공

익신고 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공익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환자안전과 불법 및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보고

환자안전이란 의료로 인한 우발적 혹은 예방 가능한 손상이 없는 것을 말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환자안전을 ‘보건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해(harm)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최소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염영희 외, 2014). 환자안전사고(patient safety accident)는 질병의 자연경과와 관계없이 발생한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정의하며, 환자에게 끼친 피해의 유무와 관계없이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오류(error), 실수(mistake), 사고(incident)를 포함한다. 또 다른 개념인 환자안전사건(patient safety incident)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위해를 주었거나 줄 수 있었던 사건이나 상황’으로 위해사건(adverse event)과 의료오류(medical error)를 포괄하는 개념이다(김재영·황은애, 2014). ‘위해사건’(adverse event)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아닌 의학적인 처치에 의하여 발생한 손상을 말하며, ‘의료오류(medical error)’란 현재의 의학적 지식수준에서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 혹은 근접오류를 말한다(김재영·황은애, 2014).

환자안전에 관한 문제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료소비자의 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 의료오류를 인정하거나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류에 대한 보고가 의료인의 의무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의료인중 가장 많은 인력을 차지하면서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간호수행과 관련된 사고 발생이 전체사고의 약 50% 가량 된다는 보고는 간호사들이 환자 안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송미란, 2014). 의료오류의 보고와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대상자의 76.5%가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김기경 외, 2006), 이나주와 김정희(2011)는 간호사의 경우 환자에게 위해가 되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76%가 보고된다고 하였고, 김정은(2007)의 연구에서는 실제 의료과오는 ‘항상’ 또는 ‘대부분’ 보고되고 있으며 근접오류는 ‘항상’ 보고되기보다는 ‘대부분’ 보고되고 있다고 하였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강민아 등(2005)의 연구에 의하면 환자에게 중대한 해를 끼친 의료오류의 경우에도 약 22%에서 보고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료인들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정당하지 못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가 잇따라 발

생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다나의원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C형 간염에 감염되어 건강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의약품 사용, 병원감염 등 환자를 위협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안전법 제정 청원운동’ 등의 입법에 관한 의견수렴을 지속하여, 2015년 1월 28일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의료관련 사건보고는 의료인의 자발적인 보고가 아니라 규범화된 법적의무가 되며(박재훈, 2015), 보고하지 않은 환자안전 사건은 간접규제 방법의 하나인 공익신고 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 법 제17조(자율보고의 비밀 보장 등) 4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 공익신고의도 영향요인

1) 도덕지능

도덕지능은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려는 윤리적 마음가짐과 실천적 지혜로 도덕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이인재·정수연, 2010), 성품 또는 실천적 지혜의 함양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정수원, 2010).

도덕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학자마다 접근하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그 의미와 구성 요소에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는 보바의 견해를 기초로 하였기에 그의 이론에 근거하여 살펴해보았다. 보바(한혜진 역, 2004)는 도덕지능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도덕지능의 구성요소로 공감, 분별력, 자제력, 존중, 친절, 관용, 공정성을 제시하였다. 이들 7가지 필수덕목은 도덕적 나침판으로서 책임감 있게 생활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데 초석이 되어 도덕지능이 확립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적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부정적 영향들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한혜진 역, 2004; 이수연, 2014).

각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공감(empathy)은 타인의 고민을 이해하고 함께 생각하는 능력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며, 둘째, 분별력(conscience)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스스로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내면의 능력이고, 셋째로 자제력(self control)은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고 욕구충족을 나중으로 미루는 능력으로 위의 3개 요소는 후속덕목을 유도하는 핵심덕목이다. 넷째는 존중(respect)으로 공손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며 다섯째, 친절(kindness)은 타인의 행복과 기분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대방이 최적의 행복에 이르도록 베푸는 덕목이다. 여섯째는 관용(tolerance)으로 다른 사람의 존엄과 권리도 존중하는 것으로 친절과 존중, 이해심으로 타인을 대하도록 이끌어주는 덕목이며, 마지막 공정

(fairness)은 편견 없이 정직하고 정당하게 행동하도록 이끄는 힘으로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고 요구할 용기를 말한다(한혜진 역, 2004).

도덕지능과 관련한 선행연구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적어 김민아(2013)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윤리상황극과 찬반토론이 도덕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연구와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덕지능과 내부공익신고 의도와의 관계(김인순 외, 2015)가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도덕지능과 공익신고 의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공익신고의도의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2) 프렌드십

인간의 사회적인 요소 중에서 친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친구라는 용어는 상황, 인구통계학적 요소, 그리고 삶에 대한 서로의 관심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프렌드십은 친구라는 단어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인 친밀성, 충성도, 정직, 신뢰, 각자의 동료로서의 즐거움을 포함하고 있다(Hays, 1988; 안진우, 2015에서 재인용). 프렌드십은 몇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첫째는 자기노출과 관련이 있다. 즉 친구사이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서로 공유하며 서로 간에 완전히 열려있는 자세를 취한다. 둘째는 자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반 하여 서로 간에 기꺼이 동료가 되어주고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며, 셋째는 공통적 지향성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다. 즉 한 당사자가 제공한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의무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간에 협업을 통해 공통적 지향성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배타적인 서로간의 내재적 지향성을 포함한다. 즉 진실한 관계로 관계의 고유한 즐거운 측면 때문에 서로간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친밀성, 자발성, 협업성, 진실성 등이 프렌드십으로 대표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Price and Arnould, 1999; 안진우 외(2015)에서 재인용). 따라서 프렌드십은 두 당사자가 서로 좋아하고 서로의 동료가 되기를 원하며 서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꺼이 지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Wright, 1985; Hays, 1988) 공익신고 의도와 관련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프렌드십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프렌드십이 조직의 유효성(안진우 외, 2015) 또는 마케팅과 관련된 연구(안진우, 2013a; 안진우, 2013b; 안진우 외, 2013)가 있으나 프렌드십과 공익신고 의도와 관련된 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본 연구의 선행연구(김인순 외, 2015)에서 ‘나와 뜻을 같이하는 친구의 수’가 공익신고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친구와 관계되는 요인인 프렌드십을 공익신고의도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에 근거하여 간호학생들의 공익신고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적 힘인 도덕지능과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꺼이 지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인 프렌드십, 그리고 일반적 특성 중 연속변수인 친구의 수와 연령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공익신고에 대한 의도와 공익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하고 있는 K대학교 간호학과 4개 학년에 재학 중인 26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대상 학과의 교수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응답의 비밀보장과 참여자로서의 권리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설문지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10월 12일에서 10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268명이었으며, 불완전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한 266부를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3. 측정 도구

조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질문 구성내용은 일반적 특성, 공익신고의도, 도덕지능, 프렌드십 등으로 구성되었다. 공익신고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지앙야오(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4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까지 4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0.77 이었다. 도덕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정예진(2012)의 도구를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 대학생들에게 적합하게 수정하였으며, 세부 영역으로 공감, 분별력, 자제력, 존중, 친절, 관용 및 공정성의 7개 영역 4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신뢰도(Cronbach's α)는 0.92 이었다. 프렌드십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유영숙(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대상자에 맞게 수정하여 5개 문항,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9 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및 백분율을 이용했으며, 대상자의 공익신고의도와 도덕지능과 프렌드십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익신고의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분석은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공익신고의도와 일반적 특성, 도덕지능 및 프렌드십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공익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대상자 연령의 평균은 20.86세 이었고, 성별은 남자 10.5%(28명), 여자는 89.5%(238명)로 간호학과와 특성이 반영되어 여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종교의 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학생이 47.4%(126명)로 종교가 없는 학생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대상자 중에서 교양과목으로 윤리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86.5%(230명)이며, 비수강 학생은 13.2%(35명)로 대부분의 학생이 윤리관련 교과목을 수강하였다. 내부고발 또는 공익신고와 관련된 반부패 교육을 받은 학생은 12.4%(33명)로 대부분의 학생은 반 부패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의 뜻을 믿고 따라주는 절친한 친구(선배 또는 후배 포함)의 수는 4명 이상이 68.4%(182명)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가 1명 이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1.9%(5명)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2. 대상자의 공익신고의도

공익신고의도의 평균 및 문항별 점수는 <표 1>과 같다. 공익신고의도의 평균은 3.16(1-4점)점으로 간호학생들은 공익신고의도가 높았다. 공익신고의도에 대한 설문문항 내용을 분류하면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과 공익신고 실행과 관련된 의도로 구분할 수 있다.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에 대한 항목은 대체로 평균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비밀보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가 3.71점이며, 그 다음은 '공익신고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3.47점, ‘공익신고가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비윤리적 행위와 보고하지 않는 의료오류를 통제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3.19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료기관 내에서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비윤리적 행위 및 보고하지 않는 의료오류의 문제를 공익신고 하지 않고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2.81점으로 가장 동의 수준이 낮으나 이 문항 역시 공익신고가 의료기관 내 불법 및 비윤리적 행위와 보고하지 않는 의료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임을 인정하고 있어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았으며, 공익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 실행의도와 관련된 문항은 대체적으로 평균보다 점수가 낮았다. 특히 ‘나는 설사 비밀보장이 안되어 근무하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공익신고 할 의향이 있다’ 2.7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나는 취업 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비윤리적 행위와 보고하지 않는 의료오류를 알거나 목격하면 공익신고를 하겠다’ 3.05점, ‘나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비밀이 보장 된다면 실명으로 공익신고를 하겠다’ 3.1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자신이 직장에서 힘들어지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목격해도 공익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반면 동료에 대해서는 ‘동료가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비윤리적 행위와 보고하지 않는 의료오류의 문제로 고민하면 공익신고를 권유 하겠다’ 3.20점으로 평균점수보다 높아 자신과 동료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은 반면 실제 실행과 관련된 의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과 실행의도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대상자의 공익신고의도 정도

내 용	Mean ±	SD
나는 공익신고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47 ±	0.54
나는 공익신고가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비윤리적 행위와 보고하지 않는 의료오류를 통제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3.19 ±	0.65
나는 취업 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비윤리적 행위와 보고하지 않는 의료오류를 알거나 목격하면 공익신고를 하겠다	3.05 ±	0.66
나는 취업 후 동료가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비윤리적 행위와 보고하지 않는 의료오류의 문제로 고민하면 공익신고를 권유 하겠다	3.20 ±	0.61
나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비밀보장은 필수적 이라고 생각한다	3.71 ±	0.46
나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비밀이 보장 된다면 실명으로 공익신고를 하겠다	3.11 ±	0.81

나는 설사 비밀보장이 안되어 근무하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공익신고 할 의향이 있다	2.75 ±	0.80
나는 의료기관 내에서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비윤리적 행위 및 보고하지 않는 의료오류의 문제를 공익신고 하지 않고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2.81 ±	0.77
총 계	3.16 ±	0.4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공익신고의도 영향요인에 따른 공익신고의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공익신고의도 영향요인에 따른 공익신고의도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공익신고의도의 평균은 3.16점이었다. 성별에 따른 공익신고의도 점수는 남자가 3.35점으로 여자 3.14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공익신고의도에 긍정적이었다. 종교 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3.17점으로 종교가 없다 3.15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23세 이상이 3.31점으로 가장 높았고 19-20세가 3.0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두 그룹의 비교에서 Duncan사후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3세 이상의 학생은 대체로 남자 복학생 또는 편입한 학생으로 남학생의 공익신고의도 점수가 높음과 관련성이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23세 이상의 학생은 다른 연령층의 학생에 비해 사회에서 저질러지는 불법 및 비윤리적 사건과 관련된 보도에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 공익신고의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과 관련된 질문 중 윤리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공익신고의도가 3.13점으로 수강하지 않은 학생 3.36점보다 낮았으며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고, 반부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공익신고의도가 3.36점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 3.14점보다 공익신고의도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윤리관련 과목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과 반부패교육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나와 뜻을 같이하는 친구의 수와 공익신고의도에서는 4명 이상의 친구에서 3.21점으로 공익신고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2명의 친구에서 3.05점으로 공익신고의도가 가장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공익신고 영향 요인인 프렌드십과 공익신고의도와는 프렌드십(평균 3.30점)이 평균이상인 경우 공익신고의도가 3.29점이고 평균이하가 3.0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프렌드십 점수가 평균이상인 학생이 평균이하인 학생에 비해 공익신고의도가 높아 믿고 지지하는 동료나 선배 또는 후배가 있을 때 공익신고의도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지능과 공익신고의도의 차이는 도덕지능(평균 3.15점)이 평균이상인 경우 공익신고의도 3.34점이고 평균이하는 3.06점으로 도덕지능의 점수가 평균이상인 학생들이 공익신고의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도덕지능이 높은 학생들이 공익신고의도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2〉 일반적 특성 및 공익신고의도 영향요인에 따른 공익신고의도 차이

(N= 266)

특 성	구분	n	%	Mean ±	SD	t / F	p (Duncan)
성별	남자	28	(10.5)	3.35 ±	0.48	2.217	.034
	여자	238	(89.5)	3.14 ±	0.41		
종교	있다	126	(47.4)	3.17 ±	0.40	.313	.755
	없다	140	(52.6)	3.15 ±	0.43		
연령 (평균20.86±2.11)	≤18 ^a	59	(22.2)	3.19 ±	0.40	3.133	.026 (b<d)
	19-20 ^b	131	(49.2)	3.09 ±	0.40		
	21-22 ^c	53	(19.9)	3.25 ±	0.45		
	≥23 ^d	22	(8.3)	3.31 ±	0.45		
윤리교육수강	예	230	(86.5)	3.13 ±	0.41	-3.009	.003
	아니오	35	(13.2)	3.36 ±	0.41		
반부패교육	예	33	(12.4)	3.36 ±	0.44	2.536	.012
	아니오	233	(87.6)	3.14 ±	0.41		
절친한 친구 수	≤1	5	(1.9)	3.10 ±	0.41	2.210	.087
	2	37	(13.9)	3.05 ±	0.42		
	3	42	(15.8)	3.07 ±	0.37		
	≥4	182	(68.4)	3.21 ±	0.42		
프렌드십 (평균3.30±0.46)	평균이상	106	(39.8)	3.29 ±	0.42	4.279	.000
	평균이하	160	(60.2)	3.07 ±	0.39		
도덕지능 (평균3.15±0.30)	평균이상	98	(36.8)	3.34 ±	0.45	5.443	.000
	평균이하	168	(63.2)	3.06 ±	0.36		
공익신고의도 전체 평균				3.16 ±	0.42		

4. 대상자의 공익신고의도 영향요인과 공익신고의도 간의 관계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와 변수가 어떤 종류의 연관성을 가지며,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연구의 인과성을 밝히기에 앞서 이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지수를 상관계수라고 한다(이군희, 2001).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도덕지능과 프렌드십에 따른 공익신고의도 차이 <표 2>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 중 연속변수인 연령, 절친한 친구 수, 도덕지능의 구성요소(공감, 분별력, 자제력, 존중, 친절, 관용, 공정)와 프렌드십과 전체 도덕지

능과 공익신고의도와 상관을 분석하였다. 변수들 간에 선형관계는 <표 3>과 같으며, 분석결과 친구 수($r=.143$, $p=.019$)와 도덕지능의 구성요소인 관용($r=.464$, $p=.000$), 친절($r=.416$, $p=.000$), 공정($r=.390$, $p=.000$), 분별력($r=.337$, $p=.000$), 존중($r=.333$, $p=.000$), 자제력($r=.332$, $p=.000$), 공감($r=.332$, $p=.000$), 프렌드십($r=.294$, $p=.000$), 전체 도덕지능($r=.458$, $p=.000$)과 공익신고의도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절친한 친구 수가 많을수록, 도덕지능의 구성요소인 공감, 분별력, 자제력, 존중, 친절, 관용, 공정과 도덕지능이 높을수록, 프렌드십이 강할수록 공익신고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도덕지능, 프렌드십과 공익신고의도와의 관계

	연령	절친수	공감	자제력	분별력	친절	공정	존중	관용	프렌드십	도덕지능
연령	1.00										
절친수	-.117 (.057)	1.00									
공감	.064 (.301)	.167 (.006)	1.00								
자제력 (p)	.100 (.106)	.098 (.110)	.456 (.000)	1.00							
분별력 (p)	.088 (.153)	.055 (.375)	.484 (.000)	.664 (.000)	1.00						
친절 (p)	.055 (.373)	.139 (.024)	.597 (.000)	.508 (.014)	.637 (.000)	1.00					
공정 (p)	.063 (.305)	.028 (.648)	.536 (.000)	.615 (.000)	.661 (.000)	.635 (.000)	1.00				
존중 (p)	.138 (.025)	.055 (.374)	.520 (.000)	.588 (.000)	.677 (.000)	.652 (.000)	.774 (.000)	1.00			
관용 (p)	.070 (.254)	.063 (.307)	.483 (.000)	.596 (.000)	.581 (.000)	.627 (.000)	.652 (.000)	.706 (.000)	1.00		
프렌드십 (p)	.096 (.121)	.218 (.000)	.391 (.000)	.488 (.000)	.442 (.000)	.410 (.000)	.492 (.000)	.494 (.000)	.497 (.000)	1.00	
도덕지능 (p)	.101 (.101)	.107 (.081)	.665 (.000)	.793 (.000)	.833 (.000)	.823 (.000)	.867 (.000)	.857 (.000)	.805 (.000)	.574 (.000)	1.00
공익신고 의도 (p)	.090 (.145)	.143 (.019)	.324 (.000)	.332 (.000)	.337 (.000)	.416 (.000)	.390 (.000)	.333 (.000)	.464 (.000)	.294 (.000)	.458 (.000)

5. 대상자의 공익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공익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인으로 연령, 절친한 친구 수와 도덕지능의 구성요소인 공감, 분별력, 자제력, 존중, 친절, 관용, 공정과 프렌드십을 단순회귀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단순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

중 절친한 친구 수와 도덕지능의 구성요소인 공감, 분별력, 자제력, 존중, 친절, 관용, 공정과 프렌드십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표 4〉 대상자의 공익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순회귀분석)

(N=266)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F	p	R ²
	B	SE				
연령	.018	.012	.090	1.462	.145	.008
절친한 친구수	.075	.031	.147	2.413	.016	.022
공감	.314	.057	.324	5.557	.000	.105
분별력	.393	.068	.337	5.819	.000	.114
자제력	.368	.064	.332	5.718	.000	.110
존중	.404	.070	.333	5.746	.000	.111
친절	.234	.077	.209	3.025	.003	.026
관용	.565	.066	.464	8.516	.000	.215
공정	.476	.069	.390	6.892	.000	.152
프렌드십	.268	.053	.294	5.002	.000	.087

이들 독립변인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표 5〉, 공익신고의도에 영향을 주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41.873$, $p<.000$) 모형의 설명력은 24.2%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도덕지능의 구성요소인 관용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F=4.829$, $p<.000$) 21.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친절($F=3.025$, $p<.003$)이 2.6%의 설명력을 보여 이들 두 항목이 공익신고의도에 전체 24.2%를 설명하였다. 즉 다른 사람의 존엄과 권리도 존중하는 것으로 친절과 존중, 이해심으로 타인을 대하도록 이끌어주는 덕목인 관용이 간호학생의 공익신고의도를 21.6%의 설명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 외 다른 독립변수들은 간호학생들의 공익신고의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 간호학과 학생들의 공익신고의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를 찾을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의 도덕지능에 대한 관심과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표 5〉 대상자의 공익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

(N=266)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F	p	R^2 변화량
	B	SE				
관용	.405	.084	.333	4.829	.000	.216
친절	.234	.077	.209	3.025	.003	.026

 $R^2 = .242$, Adjusted $R^2 = .236$ F (p) = 41.873 (.000)

V. 결론 및 제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신고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러한 의료분야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불법 및 비윤리적 행위 그리고 보고하지 않은 의료오류에 대한 공익신고의 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직업을 갖게 될 간호학과 대학생들의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 및 실행의지 등 공익신고의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생들은 공익신고의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설문문의 내용을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과 공익신고 실행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공익신고 실행이 공익신고 인식보다 낮았다. 공익신고 인식 문항 중 긍정을 보인 문항 순으로 나열하면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은 필수적이다’, ‘공익신고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공익신고가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비윤리적 행위와 보고하지 않는 의료오류를 통제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의 순으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공익신고가 필요하다는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충족되어야 함을 전제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 실행의도 중 부정적으로 응답한 문항 순으로 나열하면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공익신고 할 의향이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비윤리적 행위와 보고하지 않는 의료오류를 알거나 목격하면 공익신고 하겠다’,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비밀이 보장된다면 실명으로 공익신고 하겠다’ 이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자신이 직장에서 힘들어지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목격해도 공익신고 하는 것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익신고의도의 차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19-20세보다 23세 이상인, 절친한 친구의 수가 4명이상일 때 공익신고에 긍정적이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교육과 관련된 특성에서는 윤리관련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수

강한 학생보다, 반부패 교육을 받은 학생이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공익신고의도에 긍정적이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간호학과 대학생들에게는 윤리관련 교육에 대한 점검과 윤리강령에 근거한 반부패 및 공익신고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해야 할 것이다.

공익신고의도 영향 요인으로 선정한 프렌드십과 도덕지능과 공익신고의도의 차이에서는 평균이상의 프렌드십과 도덕지능을 보인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공익신고의도에 긍정적이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나를 믿고 지지하는 동료나 선배와 돈독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프렌드십이 높은 학생이 공익신고의도가 높았고, 다양한 삶과 인간관계속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가짐과 실천적 지혜 및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인 도덕지능이 평균이상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공익신고의도에 긍정적이었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프렌드십 및 도덕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봉사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 권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신고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독립변수 중 연속변수인 연령, 절친한 친구 수, 도덕지능의 구성요소와 프렌드십, 전체 도덕지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친구 수, 도덕지능의 구성요소인 관용, 친절, 공정, 분별력, 존중, 자제력, 공감과 프렌드십, 전체 도덕지능과 공익신고의도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절친한 친구 수가 많을수록, 도덕지능의 구성요소인 공감, 분별력, 자제력, 존중, 친절, 관용, 공정과 전체적으로 도덕지능이 높을수록 프렌드십이 강할수록 공익신고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덕지능의 구성요소 중에서 관용이 21.6%를 설명하였고 친절이 2.6%의 설명하여 이들 두요소가 공익신고의도 전체에 24.2%를 설명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관용이 간호학생들의 공익신고의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 다른 요인들은 학생들의 공익신고의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의 도덕지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미래에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될 간호학과 학생들의 교과목 운영에서 지식과 실무능력만을 강조한 교육뿐만 아니라, 동료와 다른 협력자에 의해 유발되는 불법 및 비윤리적 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묵인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내적능력인 도덕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이 갖추어져야 하고 또한 상호협력 및 프렌드십을 높일 수 있는 교과외 활동 등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간호사 윤리강령에 명시된 공익신고가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된 제도가 마련되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강민아 외 (2005). 환자안전문화와 의료과오 보고에 대한 의사의 인식과 태도. 『보건행정학회지』, 15(4): 110-121.
- 김기경 외 (2006). 병원간호사의 사건보고 불이행 경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행정학회지』, 12(3): 454-463.
- 김민아 (2013). 간호윤리교육에서 간호윤리상황극과 찬반토론이 간호대학생의 도덕 지능,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6(3): 376-390.
- 김인순 외 (2015).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도덕지능과 내부공익신고 의도와의 관계. 『한국응급구조학회지』, 19(3): 103-116.
- 김세영 (2014). 의료공개와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김정은. (2007). 환자안전과 관련된 병원문화와 의료과오 보고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조사. 『임상간호연구』, 13(3): 173-174.
- 김재영 · 황은애 (2014) 의료서비스 소비자안전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14(12): 1-158.
- 대한간호협회 (2013).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 대한간호협회 (2014). 한국 간호사 윤리지침.
- 박재훈 (2015). 환자안전법과 임상윤리에 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3(2): 36-66.
- 송미란 (2014). 간호사의 조직 의사소통, 사건보고가 환자안전 활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안진우 (2013a). 관계유형에 따른 관계마케팅의 성과차이. 『마케팅관리연구』, 18(3): 51-82.
- 안진우 (2013b). 고객참여행동과 프렌드십의 관계 및 이들의 관계마케팅 성과에의 영향. 『경영과 정보연구』, 32(2): 137-164.
- 안진우 외 (2015). 지각된 동료의 조직시민행동과 프렌드십이 조직성파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22(3): 112-113.
- 염영희 외 (2014). 간호관리학. 수문사, 파주. p629-631.
- 유영숙 (2009). 직장 내 프렌드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 이군희 (2001).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법문사 : 서울. p381-385.
- 이나주 · 김정희 (2011). 중소병원간호사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활동 수행정도. 『간호행정학회지』, 17(4): 466-468.
- 이상일 (2013).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개발.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과제(울산대 산학협력단). p3-35.
- 이수연 (2014). 인성교육을 위한 초등학생용 도덕지능증진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검증. 『초등도덕교육』, 46: 186-211.
- 이인재 · 정수연 (2010). 창의 · 인성교육을 위한 도덕지능의 함양 방안. 『초등도덕교육』, 33: 197-226.
- 정예진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와 비행의 관계에서 도덕지능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정수원 (2010). 초등 도덕교육에서 도덕지능의 함의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지양야오 (2012).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내부고발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한혜진 역(2004). 도덕지능(원저자, 미셸 보바). 한언, 서울. p30-326.

Hays, R. B. (1988). Friendship, in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S. W. Duck, ed.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391-408. 안진우(2015)의 연구에서 재인용.

Price, L. L. and Arnould E. J. (1999), Commercial Friendships: Service Provider-Client Relationships in Context. Journal of Marketing, 63: 38-56. 안진우(2015)의 연구에서 재인용.

Wright, P. H. (1985). The Acquaintance Description Form, in Understanding Personal Relationship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S.Duck and D. Perlman, eds. London: Sage Publication, 39-62. 안진우(2015)의 연구에서 재인용.

동아일보(2012. 9. 11)

동아일보(2016. 2. 25)

투고일자 : 2016. 09. 07

수정일자 : 2016. 09. 26

게재일자 : 2016. 09. 29

<국문초록>

간호학생의 공익신고의도와 영향요인 연구

김인순 · 최은숙 · 이경열 · 광명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와 가족들은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기를 기대하며 또한 이는 환자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의료서비스를 불안전하게 제공할 의도는 없겠지만, 현재의 의료서비스의 안전 수준이 환자들의 기대수준에 미치고 있다고도 단언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 문제된 일회용 주사기와 일회용 키트의 재사용에 의해 C형 간염을 집단 발생케 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의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될 간호학과 학생들이 미래에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불법 및 비윤리적 행위와 의료오류 등에 대해 공익신고를 할 의도를 파악하고 및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의 전반적인 공익신고의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설문내용을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과 공익신고 실행에 대한 의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공익신고 실행에 대한 의도가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보다 낮았다. 가장 높게 긍정적인 문항은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비밀이 보장되면 공익신고 할 의향이 있다는 문항이었다. 반면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문항은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공익신고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이었다. 이들 문항의 공통점은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이었다. 또한 공익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덕지능의 구성요소 중에서 관용이 21.6%, 친절이 2.6%를 설명하여 이들 두 요소가 공익신고의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간호학과 대학생에게 공익신고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덕지능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 및 활동 등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공익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제언한다.

주제어: 공익신고의도, 프렌드십, 도덕지능, 간호학생

